








3 글로벌 주요국, 전기차 지원 정책 축소·폐지 움직임 가속

➔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주요국은 전기차 지원 정책 제동

-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앞두고 전동화 전환에 맞춰 대량 생산에 나섰지만, 부족한 전기차 인프라, 배터리 화재, 비싼 가격 등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 또한, 주요 완성차 기업도 전기차 생산 계획을 철회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 전기차 생산 브레이크

〈 전기차 지원 정책 축소·폐지 및 전기차 생산 계획 현황 〉

구분	현황
	•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7(Euro7)'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30년으로 연기
	• 당초 금년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년간 앞당겨 보조금 지급 중단(2023.12.16)
	• 내연차 퇴출 시기를 종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연기
	• 2024년 전기차마다 부품 생산, 조립, 완성차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을 점수로 계산해 최저 점수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등 전기차 보조금 적용 대상을 축소
	• 120억 달러 규모 전기차 투자 계획(배터리 합작회사 포함) 연기
	• 전기차 수요 둔화에 멕시코 신규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 연기
	• 2024년까지 40만 대 판매 목표였던 전기차 트럭 생산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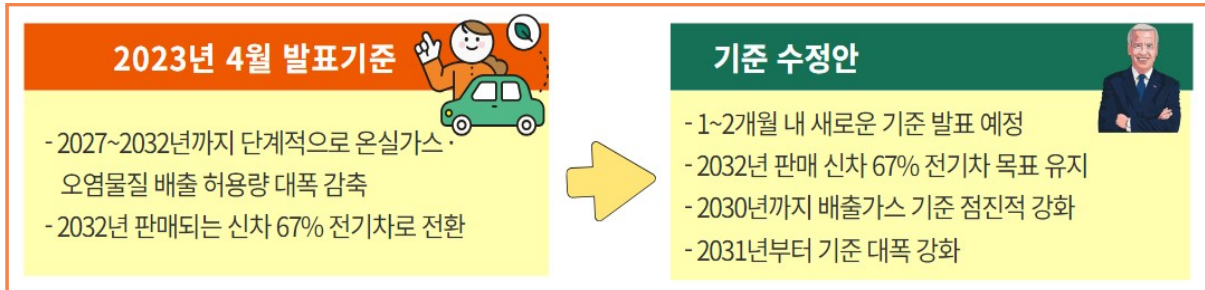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

➔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시점 늦추며 전기차 전환 속도 완화

- 올해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 및 노조 요구에 맞춰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배기가스 배출 제한 기준을 완화 예정
-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기준 강화 정책을 내놓으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감소 의무를 강화해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을 3분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며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빠르게 강화
- 자동차 업계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자가 적은 만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

- 특히, 전미자동차노조(UAM)는 2023년 새 배출가스 기준이 공개되자 일자리 우려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
- ※ UAW에는 포드,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빅3'로 불리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 조합원 약 1만 4,600명이 가입

〈 전기차 전환 늦추는 바이든 행정부 〉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IITP)

- 이와 더불어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소 부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도감 있는 전기차 전환 계획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국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전기차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제너럴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완성차업체는 전국에 충전소를 늘리고 전기차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
- 이에 바이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수용하고 전기차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
- 수정된 정책은 1~2개월 내 발표 예정으로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 67%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릴 것으로 예상

출처 : 뉴욕타임즈 외(2024.2.)

<https://www.nytimes.com/2024/02/17/climate/biden-epa-auto-emissions.html>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543>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19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10658138026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816701>